

조선대 '취업성공 사관학교' 첫 운영

국내 30대 그룹사 채용 전문가 대거 참여
면접 컨설팅, NCS학습 등
취업 역량 강화 훈련



조선대 취업전략팀이 진행한 모의면접 컨설팅 장면.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가 취업 준비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희망하는 직장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조선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졸업생들이 가장 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묶은 '2020년 취업성공 사관학교'를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취업전략팀은 27일까지 모집하는 '2020학년도 취업성공 사관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한 달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0학년도 취업성공 사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수요조사 결과에 반영해 채용 전문가들이 4단계에 걸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NCS 학습,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조선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요조사와 건의사항을 받았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재학생 22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학년도 진로 취·창업 구직활동 교육수요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기관'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NCS 특강,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2019학년도 2학기 교원 CQI 보고서' 건의사항에는 대학 강의에서 부족한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외부강사의 특강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조선대 취업전략팀이 진행한 모의면접 컨설팅 장면. <조선대 제공>

'2019년 잡 컨설팅 및 입사목표기업 분석공모전 결과보고서'에서는 취업 희망 기업 유형으로 공기업(42.26%)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소개서 첨삭, 직무 교육, NCS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선대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대기업 직무 선택과 대응 전략, 공기업 NCS 기반의 채용 프로세스를 반영한 '2020년

취업성공 사관학교'를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그룹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1단계(STEP1)에서는 직무 이해,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 대응전략,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풀이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2단계(STEP2)에서는 1단계의 NCS학습을 기반으로 개인별 NCS 모의고사를 진행해 실전시험에 대비한다. 3단계(STEP3)와 4단계(STEP4)에선 개인별 맞춤형 입사지원서 컨설팅(대면)과 면접유형별 실습 피드백(비대면)을 통해 면접 자신감을 향상시

키는 시간을 갖는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공기업 외부 면접관으로도 참여 중인 국내 30대 그룹사 채용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윤오남 취업학생처장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참가자는 중도 탈락시키고, 참가자들의 건의사항을 매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전원이 취업 역량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성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이력 있으면 교원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교육부, 'n번방' 사건 대책

교육부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교대, 사범대생 등 예비교원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자가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교원자격 취득제한으로 예비교원의 교사

임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자격검정 결과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격이 박탈된 지 2년 이내 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만이 유일하다.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과 공조해 'n번방', '박사방' 가해자 중 학생의 명단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여성, 2019 중기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1위

산학맞춤반 프로젝트 운영

전남여성상업고등학교(교장 최규명·사진)가 2019 중기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이하 중기부 사업) 참여학교 199개교 중 광주·전남·제주권역에서 사업성과평가 1위를 달성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전남여성 등 전국 20개 학교가 중기부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전남여성상은 14년째 중기부 사업을 이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학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실무 중심의 '전공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성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국가직 9급 공무원(2019학년도 6명, 누적 32명), 공공기관(한국전력



공사,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대기업(삼성, 롯데, 한화 등)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남여성상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2020년도 사업비 20% 증액, 우수학교 현상 수여, 실무진 해외장학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규명 전남여성상 교장은 "학교의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이 전국 특성화고교 중 상위 10%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여성상을 특성화를 선도하는 으뜸학교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홍보대사 80명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오는 5월 4일까지 단과대학별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단과대학별 홍보대사는 조선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화상면접 평가 후 최종 80명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많은 재학생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작년 15명에서 80명으로 홍보대사 인원을 대폭 늘렸다. 자발적인 활동 의욕 고취 및 홍보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 활동지원금(월 10만원)과 팀별 장학금(최대 200만원) 등의 성과보상시스템도 마련했다.

홍보대사는 블로그, SNS, UCC, 교내외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고품격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박차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손을 맞잡고 모범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에 나선다. 동강대는 27일 오전 교내 학술정보원 세종홀에서 금파공업고등학교(교장 기문표)와 업무협력 협약을 가졌다. <동강대 제공>

전남대, 재택수업 장기화에 온-라인 학습 상시화

전남대학교가 재택수업의 장기화를 계기로 온라인 학습이 평상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학습콘텐츠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전산시스템을 대폭 확충하는 등 온라인 학습 상시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전남대 기초교육원은 ▲교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밋고-교학상장' ▲선배 또는 동료와 함께 공부하는 '학습파트너'와 '열공' 등 그동안 대면으로만 진행했던 다양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카카오톡·팀즈·스카이프·행아웃·줌 등 화상강의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학습수준과 적절한 학습방법

을 제시해주는 '학습코칭'도 온라인으로 바꿔, 학생 스스로 학습검사를 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수학·물리·화학 등의 문제풀이가 어려운 학생들이 온라인에 질문을 올리면, 3~4학년생들이 대학원생과 강사의 피드백을 받아 게시판에 답변을 제공하는 '지식 나눔샘'을 신설하기도 했다.

전남대는 앞서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서버 4대, 동영상 서버 2대를 추가하고, CDN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물론 동영상 활용 증대에 맞춰 저장 공간을 20TB로 대폭 확장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